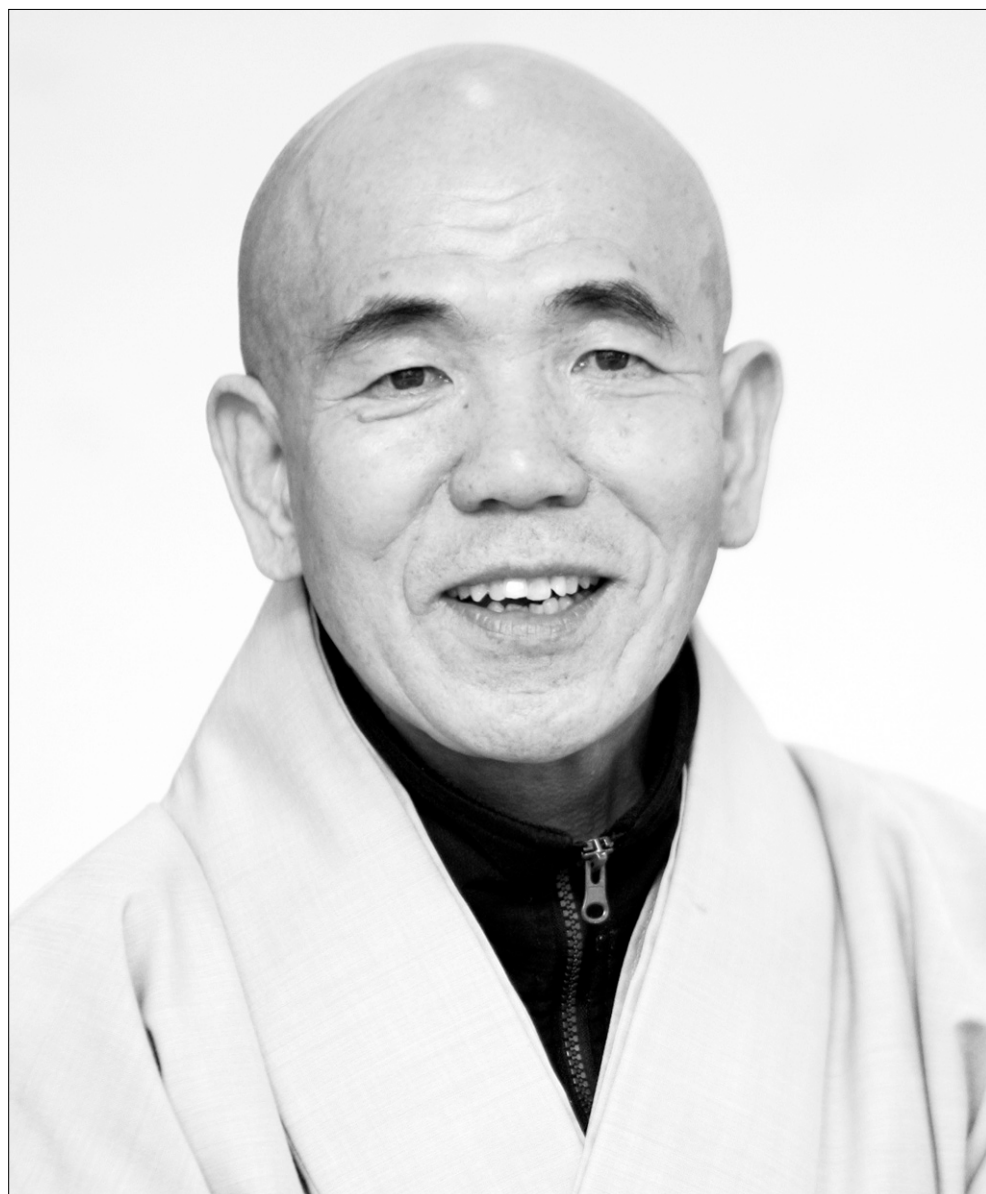


“좋다 좋다, 나의 삶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출가한지 50년이 넘는 구암수좌 적명 스님은 여름, 겨울 안거마다 결제는 물론 해제 때도 젊은 수좌들과 산철결제를 이어 왔다. 스님에게는 자애와 온화함이 묻어났다.

적명 스님(假明, 72). 한국의 수좌로서 손꼽히는 분이다. 출가한 지 50년 된 구암 수좌이지만 “법이 없다”는 스님은 좀처럼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지 않았다. 올해 하안거 결제에 특별히 수행자들을 위해 인터뷰를 응해준 스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다. 평온했다. 그리고 맑고 밝았다. 스님의 법명 그대로 고요함과 맑음, 밝음이 느껴졌다.

하안거 결제를 하루 앞둔 5월 27일 문경 봉암사주지 원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스님의 첫 마디는 “카메라가 터져서 신경이 쓰인다.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다”는 겸손과 수줍음이었다. 엄하고 냉정하게 사진 촬영을 거부하거나 인터뷰를 빨리 끝내려는 서두름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는 말로 대중에게 이해를 당부했다.

스님은 문경 화양산 봉암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적명 스님은 “20여 년 전만 해도 가난한

절이었다. 1982년 봉암사가 종립특별선원으로 지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외형적인 것은 끝났다. 이제 내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다. 과거 봉암사는 정진을 위해 찾아오던 공간이었다. 이제 정진을 위해 준비가 됐다. 대중이 함께 정진하고 싶은 곳, 가장 정진 잘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제 지켜보라”고 말했다.

스님은 2008년 대중의 요청으로 은해사 기기암에서 봉암사로 왔다.

적명 스님은 “10년 안에 열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도인을 배출하겠다”며 당신이 봉암사에 와서 세운 서원을 밝혔다.

50년간 선방에서 꽃꽂이 산철 결제를 이어온 스님은 방문객을 위한 첫 주제가 ‘수행’이었다.

“선방에서 수행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진은 심성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정진은 ‘선정과 지혜’로 나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누어 볼 수 있지요.”

스님은 쉽게 접근했다. 적명 스님은 “본래마음은 체(體)이고 지혜는 용(用)”이라고 설명했다.

“정(定)을 닦지 아니하면 헤기 이루어질 수 없고, 혜(慧)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을 뒤을 수 없습니다. 호수에 일어난 파랑을 가라앉으면 명경지수(明鏡止水)가 되듯, 물 자체는 고요한 모습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타나지 않았던 물 자체의 특성이 맑음과 빛으로 드러납니다. 맑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여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진을 하면 요동쳤던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고, 그때야 비로소 본질적 모습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화두는 본래 심성에 갖추어져 있는 정과 혜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화두라는 것은 깨달은 이가 명경지수의 상태에서 보고,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스님은 일반인들에게 ‘쉬운 화두’를 던졌다. 쉬운 화두라는 것이 중생에게 있을까마는.

“북두(北斗)를 면남관(面南觀)하라”

이어 스님은 “유수한 선지식이 조실 이들을 안 떼고 지내는데, 조실로서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가 있었는가? 이틈은 상관이 없다. 수좌로도 조실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명 스님은 현대인을 위한 간단한 수행법으로는 달마 스님의 이입사행론 중 ‘보원행(報怨行)’을 추천했다. “내가 원해서 일으켜서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 현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 감수하라. 고맙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지남을 일으키지 아니하라. 좋다 좋다, 나의 삶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살라. 원수를 몸으로 갚고도 도를 향해 나아가라. 내가 원했던 것이니 흔쾌히 받아들여 두려움, 원망, 회피의 악한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

스님은 인과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를 요구했다.

“부처님 인과법을 믿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당당하게 현실을 받아드리면 끝까지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체로 인과법은 부처님의 길을 가게 되는 수행법

체험해야 합니다. 일체 번뇌를 벗어나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마음의 기본 방향을 잡아 정진을 통해 순일을 체험하십시오. 고행이라는 것이 겉모습에 지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은 고행하지 않았다. 진정한 선정에 들었을 때는 고행이라 할 수 없다. 고통스러웠다면 진정한 삼매가 아니다. 회열이 있어야 한다. 선정은 ‘희락(喜樂·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다. 충분한 행복감을 체험한 이들은 수행의 길을 절대 포기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적명 스님은 회열의 상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철저한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이었다.

스님은 “순수 회열은 변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다. 회열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때 이것이 오롯한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

적명 스님은 “<열반경>에는 열반의 네 가지 특성을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 말한다. 진리의 문턱에 이르러 봤는데 회열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매일 10분씩 반복하세요. 화두참선이면 좋겠지만 염불, 절, 주벽 무슨 수행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조

수좌로도 조실 이상 역할 할 수 있어 승려 사유재산 종단출연 유언은 인격모독

‘면남관’ 하라는 것은 얼굴을 남쪽으로 하고, ‘북두’는 북쪽 하늘을 보라는 뜻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은 이에게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두 참구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끊어지면 대상이 절로 끊깁니다. 화두를 제대로 들기만 하면 상대성을 초월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삼고초려 끝에 봉암사 수좌로 모셔진 적명 스님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실, 방장 등 직함을 사양했다. 법이란 무엇인가?

적명 스님은 “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사양할 필요가 없다”며 우문에 답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현실을 알고 있다. 지금 현실에서 부처님이나 선사들과 같은 방장이 아니다. 문중, 권속 등의 혼란 속에서 자격이 없어도 방장이나 조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조실 소임이 아니라도 지낼 수 있다면 굳이 조실이라는 이름을 갖을 이유가 없다”며 항곡 스님, 전강 스님 등 선대 선지식인들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고,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과법에 대해서 깊이 믿는 마음이 들면 그 자체가 해탈입니다. 일상에서 불교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인과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적명 스님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조계(草繫) 비구 설화를 들어 무조건적 사업에 대해 경고했다. 스님은 “도적에게 물건을 다 빼앗기고 풀에 묶인(草繫) 비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행어나 풀줄기들이 끊어져 풀들이 상할까 두려워 풀을 풀지 않고 모든 고통을 억지로 참아냈다. 불교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사상은 이와 같은데 어떤 목적에 의한 살생과 개발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개발을 해야겠지만 온 산지천하를 청계천으로 만들려고 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후학들에게도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

적명 스님은 “고원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수행의 길을 가다가 깨달음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삶 자체가 행복한 기쁨의 삶이다. 이 길에 대해서 고달파하거나 힘든 길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수행의 참뜻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순일의 상태를

검색 하다보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하다보면 순일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빗물이 떨어져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은 곧 순일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간절함, 진실함이 나가거나 멀거나, 마음을 갖고 싶거나 멀거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스님은 조계종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수행자의 인품과 자질을 믿지 않고 강제적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인격모독’”이라고 일축했다.

적명 스님은 “부처님은 걸식을 기본으로 했으며 근본 계율에서 승려의 사유재산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이 옳은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사회에는 삶의 형태가 바뀌면서 스님들도 돈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다”며 “부처님 계율대로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들의 재산은 불연에 의한 것으로, 알아서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사용될 부분을 의무적으로 유서를 쓰고, 사유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인격모독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글=이상연 기자 · 사진=박재관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병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금강대학교

2010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과정 및 인원

학 과	전 공	모 집 인 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사회복지불교학과	사회복지불교학전공	00명	0명
2. 모집일정

가. 원 서 접 수 : 2010. 6. 10(목) ~ 6. 25(금)
나. 면 견 접 : 2010. 7. 1(목) 15:00 예정
다. 합격자 발표 : 2010. 7. 9(금) (본 대학교 홈페이지 www.ggu.ac.kr에 공고)
3.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
4. 기타

가.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의 인문분야에 본 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선정되어 향후 10년간 약 80억원의 국고지원(매년 8억)을 받습니다.
나.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선발되면 매월 일정액의 인건비 (석사과정 : 월 60~80만원, 박사과정 : 월 80~100만원)를 지급합니다.
다.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각종 장학혜택이 있습니다.
라. 2010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연구보조원 선발자 제외) 전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감면합니다.
1) 석사과정 : 수업료의 50%를 감면함 2) 박사과정 : 수업료의 35%를 감면함
마. 본 대학원 재학 중 조교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재학 중에는 가족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g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대학교 GEUMGANG UNIVERSITY | 320-931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Tel:(041)731-3050 Fax:(041)731-3049